

천주교 오금동교회

Ohgum-dong Catholic Church

朴在煥/종합건축사사무소 도성건축

Designed by Park, Jae-Hwan



①

위치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동 22의 4필지
지역지구 / 일반주거지역, 주차장 정비지구
대지면적 / 2,284.5m²
건축면적 / 1,136 m²
연면적 / 7,951 m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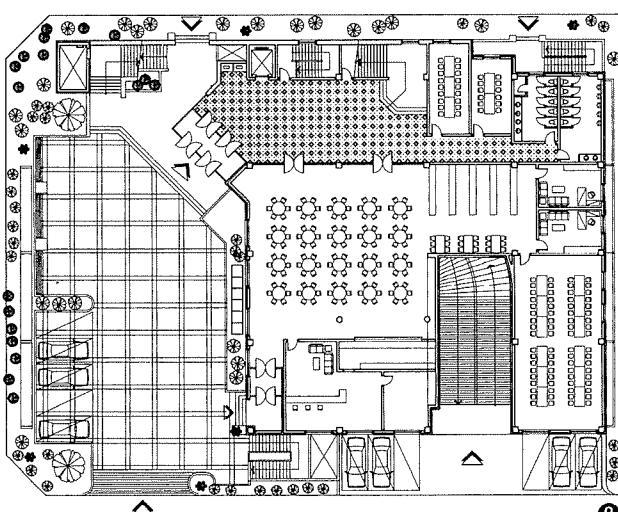
건폐율 / 49.7%
용적율 / 102.5%
규모 / 지하 3층 지상 3층
구조 / 철근콘크리트라멘조 철골지붕
주차대수 / 95대(지상 11대 지하 84대)

천주교 서울대교구의 오금동교회는 도심외각의 주거지역이라 할 수 있는 송파구의 올림픽선수촌 아파트와 기자촌 아파트단지를 북측으로 끼고있는 주변의 대부분이 아파트로 밀집되어있는 신설본당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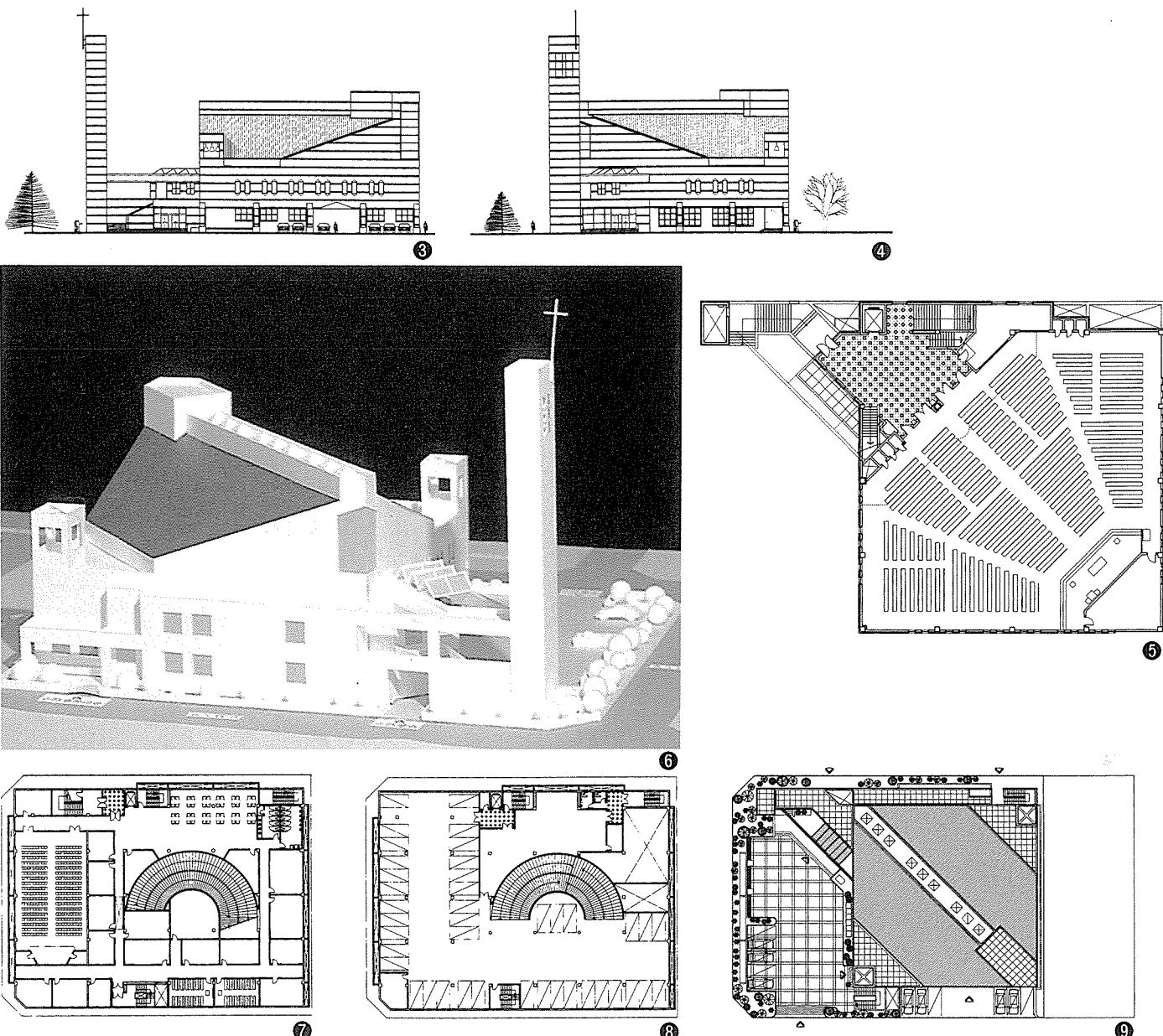
신축부지는 50m의 주도로에서 한블럭 들어와 3면이 6~8m 도로와 접한 700여평이 조금 못되는 장방형의 평활한 대지로 서측에는 6m 도로를 사이에 두고 조그마한 균린공원이 있어 그나마 시야를 틔여주고 있다.

배치계획

건물은 북동측에 배치하여 남측의 8m 도로에서 주진입이 이루어 지면서 남서측의 Open Space를 인접 균린공원과 연계성을 함께 갖도록 하였다. 계획건물은 대지주변에서 볼 때 건물로의 접근방법이나 정면성의 부각이 양면성을 갖는 것으로 인식되어 정사각형의 구형건물이 진북방향과 일치되는 45도의 사선방향으로 중상심축을 갖도록 계획되었다. 지상과 지하의 출입동선도 기능과 역할에 맞도록 분산시켜 옥외에서의 접근도 용이하게 배려하였다.



②



평면계획

약 1,200여명의 신자를 수용할 수 있는 대전례 공간은 지상 2층(일부는 지상 3층)에 위치하며 그 형태를 정방형으로서 미사집전 사제와 참석신자들의 거리를 좁히고 공동체 의식의 일체감을 더욱 갖도록 사축성 대칭형태를 취하였다. 지상 1층에는 친교의 공간인 만남의 방을 중심으로 하여 개가석 서고와 면담실, 회의실등이 있어 각층으로의 동선과 활동화의 중심이 되도록 하였다. 지하 1층에는 약 32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소성당(강당겸용)과 다목적홀이 있고 각 단체의 집회실(교리실겸용)19개가 자리하고 있다. 지하 2층과 3층에는 약 84대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공간이 마련되어 있고 특히 지하 2층에는 장례의식을 거행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되어있다.

형태 및 단면계획

건물의 매스는 성전으로서의 장중함과 접근성이 용이한 형태를 구성하였다. 한편 주변환경을 암도 하기 보다는 조화되고 친근감을 갖도록 수직적인 요소는 가급적 지양하였다.

북동측과 남동측의 평지봉 모서리에 위치한 4각형의 작은 2개의 종탑은 외부주계단옆의 높은 탑과 함께 삼위일체를 이루는 연관성을 갖는 상징성을 부여하였다.

지상 2층의 대전례 공간의 단면형태는 중앙통로를 향하여 올라가는 지붕모양의 천장을 만들고 상부에서 은은한 빛이 투과되도록 하였다. 또한 제대 위부분은 더욱 상승시키고 남측으로부터 스테인드グラ스를 통한 빛의 투과로 전례공간의 중심으로 더욱 신비롭고 장엄한 분위기를 만들도록 하였다.

금년 가을 착공예정인 이 성당은 앞으로 10,000여명의 신자공동체가 모여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 종교건축물로서 신자들뿐 아니라 지역사회에도 열려진 교회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나눔과 사랑이 충만한 교회가 되리라 믿는다.

- ① 조감도
- ② 배치도
- ③ 남동측 입면도
- ④ 남서측 입면도
- ⑤ 2층 평면도
- ⑥ 모형사진
- ⑦ 지하 1층 평면도
- ⑧ 지하 2층 평면도
- ⑨ 1층 평면도
- ⑩ 횡단면도

